2021 하계 이화봉사단 해외교육봉사 (미국)

비대면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봉사팀

2021. 8

김*진

2018년 1학년 겨울방학, 좋은 기회로 이화봉사단 베트남 해외봉사단의 단원으로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화봉사단을 통해 얻은 소중한 배움은 제가 이번 미국 해외봉사단에 망설임 없이 지원할 수 있게끔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같은 봉사단에서 활동했던 선배님들께서 보태주신 따뜻한 조언들 덕분에 과거의 저는 수업 준비부터 끝까지 큰 실수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그분들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간직해 오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제가 가장 고학년이라고 할 수 있는 4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봉사단 활동은 제가 이화의 후배님들께 그때 당시의 경험을 토대로 베풀고 도울 수 있는 기회이자 당시 이화 선배님들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될 것이라 생각해 팀의 팀장으로서 열심히 임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던 만큼, 추가적으로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들이 많았고 전례가 부족했기에 준비하는 과정이 이전에 비해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맡은 바를 성실히 수행해주신 팀원 분들과 함께여서 무사히 수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전에는 없었던 장소 및 촬영기기 대여 그리고 영상 편집까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챙겨주신 팀원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더더욱 큽니다.

사실 봉사를 시작하기 이전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지에만 집중해왔고 그 과정은 간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력의 결과를 보는 찰나의 순간에는 기뻤지만 그 탓에 무언가에 참여하는 과정이 항상 즐겁기 보다는 힘든 경우가 더 많았고 결국에는 지치기 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온라인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가르쳤던 경험은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왔던 제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업에 참여하는 아이들에게 있어 좋은 결과의 기준이란 결코 절대적이지 않았습니다. 어제의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더 배워가는 것이 있다면 그 자체로 아이들은 만족하고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 역시도 아이들의 그러한 모습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이들을 칭찬하면서도 스스로를 칭찬하지는 못하는 제 자신의 모습에서 저는 모순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타인과 비교하기보다는 스스로의 성장에 오롯이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오히려 저는 다시금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매 순간 제 자신이 설정한 나만의 기준치를 달성해가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경험은 오히려 제 자신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저를 돌아볼 수 있게 해준 순간이었습니다. 봉사자로서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로부터 제 혼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가치를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업이 끝나고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멀게 만 느껴질 수 있는 나라인 한국의 문화에 대해 저희가 준비한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한국을 조금이나마 친근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저희가 준비한 수업이 아이들이 한국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부분에서 보탬이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수업들은 더더욱 보람차고 뜻 깊은 시간들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도 않고, 같은 공간 내에서 소통이 가능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진행했던 교육봉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진심이 전해져 닿을 수 있었던, 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한 수업이었기에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수업이 제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전*희

2021 여름 이화봉사단 활동 덕분에 여러 가지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남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고 흥미롭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어떤 내용을 추가하면 좋을지,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한국어를 아이들에게 친숙한 영어로 설명하면 좋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또한, 저는 영어 번역을 담당했었는데, 조원들과 수업 내용을 공유하면서 전달하려는 의미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강의 전달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조원들과 협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조원들끼리 서로 초면이라 의견을 맞추고 피드백을 요청하는 데에 부끄러움이 있었지만, 주기적으로 미팅을 가지면서 어색함도 많이 풀리고 아이디어도 자유롭게 공유하면서 협력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봉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 만큼 미국에 있는 한국 입양 가정의 아이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를 할지, 어떻게 ice breaking을 해서 흥미를 돋울지, 문화 차이로 서로 이해하는 게 다를 경우 어떻게 반응을 해야할지 등등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이들도 호응을 잘해주고 눈빛이 초롱초롱하게 수업에 집중을 잘해서 매우 좋은 기억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화봉사단에서 해외 봉사 참가자를 모집한다면 꼭 다시 참여해서 이번 교육 봉사를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능숙하게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현

코로나 19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변한 상황에서 여름 미국 이화봉사단에 참가하게 되었다. 현장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영상과 zoom으로 진행되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의미 있었다.

수업 주제와 세부적인 활동에 관해 결정할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든 팀원이 하나 되어 회의하여 의미 있는 수업을 기획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학기 중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회의에 참여한 팀원들의 참여와 노력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한 명당 한 수업을 맡아 영상 또는 실시간 수업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한글날>이란 수업을 주제로 진행하게 되었다. 대본을 작성하고, 영상을 찍고 마지막으로 영상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특히 한글을 형상화해 몸으로 표현하는 게임 영상을 제작했는데, 학생들이 한글을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으리라 생각하니 뿌듯했다.

지난 두 차례 국내 이화봉사단에 참가한 경험이 있지만, 이번 미국 이화봉사단을 통해서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 의미 있었고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경험이었다. 이렇게 소중한 경험을 하게 해주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봉사팀과 캠프 조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강*은

우선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처음으로 참여했던 봉사활동이자 교내 팀 활동이었기 때문에 처음 선발되었을 때에는 많이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 중고등팀에 배정되었을 때에는 나이 많은 아이들과 소통하고 유대감을 쌓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화봉사단은 아주 좋은 경험이었고, 미래에 또 참여할 수 있다면 하고 싶은 유익한 활동이었습니다.

저는 과거 초등학생이었을 때 캐나다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캠프조선 아이들의 상황에 더욱 이입할 수 있어 더욱 활동에 열심히 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마음과 더불어 좋은 팀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더욱 성공적으로 봉사단 활동을 끝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팀을 배정받은 후 역할을 나눴고, 이후 약 5차시의 수업 및 녹화영상을 기획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팀원들과의 회의를 통해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와 문화를 고민하며 열심히 회의에 임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1, 2, 3차시는 수업 또는 브이로그 형식의 녹화 영상으로 진행하였고, 4차시와 5차시는 실시간 줌 수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아무래도 학기 중에 녹화영상을 촬영해야 했기 때문에 영상의 원래 기획과는 다소 달라진 영상들이 있었습니다. 1차시는 다소 먼 촬영지와 촉박한 기간 때문에 담당 단원의 수업으로 진행되었고, 나머지 차시는 무사히 기획과 유사하게 찍을 수 있었으나, 거리두기 지침 때문에 인원수가 조정이 되었고, 중간 중간 간소화되거나 변화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 3차시에는 본래 인터넷 회의로만 소통하던 단원들과 실제로 만나 촬영을 하면서 더욱 가까워지고 편해질 수 있어 봉사단 활동이 더욱 즐거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영상의 편집은 저와 김화진 단원이 맡았는데, 화진 단원이 다행히도 브이로그 편집 경험이 풍부하여 도움을 받으며 영상 편집을 더 잘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4, 5차시에는 각각 한국의 편의점 음식 체험, 그리고 K-Pop 문화 체험을 주제로한 실시간 수업이 있었고, 저는 5차시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학생들을 직접 만나 소통을 할 수 있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착하고 열심히 활동에 임해주어서 한 번 밖에 만날 수 없었던 것이 아쉬웠습니다.

전반적으로 활동은 즐거웠고,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직접 미국에 가서 캠프조선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고 유대감을 쌓을 수 없었다는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대면활동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한번 활동에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대면 활동도 여러모로 신선했으며, 저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진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진행되는 해외 교육봉사를 위해 팀원들끼리 5월부터 준비하였습니다. 5월에 OT가 진행되고 팀이 발표된 이후, 저희는 두 달 가량 어떻게 하면 재미있으면서 효과적으로 한국 문화를 알리고 전달할 것인지 고민하였습니다. 한국을 알린다가 주제였던 만큼 주제가 굉장히 방대하였고 한국의 다양한 부분들 중 어떤 것을 소개할 것인지부터가 고민이었습니다. 긴 시간 고민 끝에 저희는 K-POP, 한국 명소, 한복, 한국 있는 절과 불교, 한국 학생들의 학교 생활로 주제들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학생들의 학교 생활의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강의 앞 부분에 미국 학생들의 학교 생활과 한국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비교하면 좋겠다 생각했지만 미국에서 공부해본 적이 없어 차이점에 대해 잘 몰라 같은 과 학생들 중 유학을 다녀온 친구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대한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이화여대 학생으로서의 학교 생활 관련 브이로그도 촬영하였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모습, 대면 및 비대면 강의를 수강하는 모습, 교내 영자신문사에서 활동하는 모습, 시험기간에 카공(카페에서 공부) 하는 모습, 작은 캠퍼스 투어 등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려 항상 카메라를 소지하고 다녔고 영상 편집을 하였습니다.

실시간 강의를 준비한 저는 혹시라도 수업시간에 실수를 하진 않을까, 학생들의 호응이 적으면 어떡하나 많이 걱정하여 그것을 대비한 해결책을 준비하였습니다.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교안을 꼼꼼하게 작성하고 검토하고 호응이 적을 것을 대비하여 다양한 영상과 쉬는 시간에 함께할 스트레칭 영상을 팀원들과 함께 준비하여 연습하기도 하였습니다. 태권도 스트레칭 영상은 특히나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열심히 따라 해줘서 고맙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쑥스러워서 발표를 부끄러워하는 친구들도 줌 채팅창을 이용하여 활발하게 수업에 참여해 줘서 고마웠습니다.

5월부터 7월 초까지 두 달 정도 준비하며 기말고사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기말고사 전날에 스튜디오에 나와 녹화 수업을 촬영하기도 하였고 녹화 수업을 하지 않고 실시간 수업을 하는 학생들도 스튜디오에 나와 촬영을 도왔습니다. 5일간 20분씩 총 두 시간 정도의 강의를 위해 열심히 함께 준비한 팀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이*영

이화봉사단 활동을 처음 해보았고, 무엇보다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모르는 점도 많고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매우 유익하고 보람찬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학년도 2학기에 미국으로 교환학생 예정이 있었기에 이 전에 미국권 봉사를 해보아도 좋겠다고 생각했으며, 최근 심해진 동양인 차별 이슈와 함께 어느정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욱 알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맡은 팀은 유초등저 팀이었으며 팀장을 맡게 되어 부담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대면으로 영상도 찍고자 하였지만 다른 지역에 거주 및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하였는데 좋은 팀원들과 얼굴 한번 마주하지 못해 이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다른 팀들에 비해 나이대가 어린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조금 더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었는데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동영상 수업에서 아이들이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잘 따라와주었으면 하는 생각에 주로 활동 위주의 수업을 기획했습니다. 아무래도 비대면이다 보니 활동 초반에 기획하는 단계에서 여러 번 바꾸면서 진행이 비교적 느리다고 생각했는데 기획 이후에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3명의 팀원은 동영상을 제작하였고, 2분은 실시간 수업을 준비하셨습니다. 동영상 제작 과정에서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즐겁게 보도록 제 목소리톤 등을 높이 유지하며 찍는 것이 목표였는데, 시험기간 및 혼자서 카메라를 보고 찍다 보니 최대한 열심히 해보았지만 직접 수업에서 진행하는 정도의 분위기가 나지 않을까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동영상 제작 능력도 크게 뛰어나지 않아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제작 관련하여 더 많이 손에 익힌 것 같습니다. 후에 실시간 수업에서 참가자분들의 활동 결과물을 보았는데, 잘 따라와주고 참여해주어 너무 고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상 실시간 수업 전에는 직접 참가자들을 만나 뵙지 못하고 제작만 하고 보내다 보니 큰 보람이나 생각은 없었는데, 실시간 수업 2번을 경험하며 많은 점을 깨달았습니다. 참가자들이 주로 한국인 입양 아이들이라고 들었는데, 주로 인구 구성이 한국인이 주를 차지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저와 같은 외모를 가진 아이들이 저 멀리서 오직 영어만을 쓰고 있는 것이 조금 신기하기도 했고 줌 도중에 잠깐 보이신 부모님들을 보았을 때는 너무 좋은 가족을 만난 것 같아 좋아보였고 조금이나마 아이들이 자신들이 태어난 나라의 문화와 특징을 더 배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 뿌듯함도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한국의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고, 방탄소년단 노래를 한국말로 읊는 친구들도 있어 깜짝 놀랬습니다. 하지만 역시 줌 수업 도중에 대화 혼선이 있기도 하였고, 물론 줌 수업도 잘 참여해주었지만 직접 얼굴을 보고 친해졌다면 더 활발하고 재미있는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의 만남은 너무 짧았지만, 저희가 수업 시간이 조금 넘어갔음에도 열심히 잘 참여해준 아이들에게 너무 고마웠고 실시간 수업을 열심히 준비해서 이끌어 주신 팀원분들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화봉사단이라는 경험을 할 수 있어 너무 유익했고, 시간 여유가 있을 때에 또 대면으로 진행을 한다면 또 참여해 볼 가치가 충분한 활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혜

저는 2015년에 자폐아 가정을 도와주는 봉사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때 처음으로 내가 잘 모르지만 사회에는 다양한 환경에 처한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구나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 사회 속에 더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멘토링, 연탄 나르기, 축제 진행 도우미, 영어마을 보조교사 등 여러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특히 교육 봉사에 관심이 많아 2018년에 처음 라오스로 해외봉사를 다녀왔습니다. 그 곳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과 힘을 모아 한국어, 영어, 체육, 미술, 과학, 위생 · 청결 등의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당시의 경험이 너무 좋아서, 이화에 오고 나서도 또 해외봉사에 참여하고자 마음먹었고, 올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를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이라 더욱 의미 있을 것 같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직접 아이들을 만나 수업을 진행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번 계기를 통해 입양 제도와 해외 입양 가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녹화된 수업 영상과 실시간 수업으로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영어로 수업 영상을 녹화하는 건 처음이라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K-POP의 5가지 장르(민요, 트로트, 발라드, 힙합, 아이돌 뮤직)"를 주제로 수업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학생들이 BTS, Black Pink 등 다양한 K-POP 가수와 노래에 관심이 많아서 주제 선정을 하고, 수업 자료와 대본을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영어 대본을 직접 외워서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제한된 시간 속에 팀원들 앞에서 촬영을 하다가 나중에는 따로 개인 시간을 들여 영상을 직접 녹화를 했습니다. 최대한 아이들이 K-POP에는 아이돌 음악 말고도 다양한 장르가 있음을 그들에게 소개시켜 주고 싶었고, 아이들이 다양한 장르의 K-POP을 통해 일상 속에서 위로와 공감을 받고, K-POP을 통해 여러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다행히도 영상 녹화와 편집은 잘 되었고, 마지막에는 Ewha V-log 와 대한민국 국내 여행지라는 주제로 두 번의 실시간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그 때 처음으로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는데, 한국의 여느 또래 초등학생처럼 굉장히 평범한 아이들이었고, 수업에도 적극적이고 밝게 참여해줘서 좋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수업에서는 팥빙수 만들기 체험이 진행되었는데, 역시 아이들은 참여형 수업을 정말 좋아하는 구나 깨달았습니다. 이번에 각 팀원들이 직접 만든 한국 문화 소개 영상과 자료들을 보면서, 저도 잘 몰랐던 템플 스테이, 한복의 종류, 명칭 등 한국 문화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대략 3개월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각 팀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한 것 같고, 마지막에는 제가 만든 수업 영상과 수업 자료가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만약 미국에 직접 가서 수업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미국에 직접 가서 수업을 했다면, 아이들과 좀 더 친해지고, 좀 더 아이들에게 참여를 유도하는 수업을 진행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제 수업 영상이 어땠는지 후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못 물어봐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비대면이 아닌 대면으로 관련 프로그램에 다시 한 번 참여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번 봉사 활동은 오로지 각자 팀들이 주체적으로 진행을 하였는데, 이를 통해 매주 회의의 중요성과 여러 의견을 서로 나누고 토의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아이들과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시간은 적었지만, 그래도 이번 학기에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에게도 소개하고 싶을 정도로 유익했고,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올해 여름, 이화봉사단의 일원으로서 유·초등 저학년 아이들에게 한국의 문화에 대해 가르친 것은 내게 있어 매우 새로운 경험이었다. 한국어 도우미 등 여태 했던 봉사활동에서는 항상 또래를 상대했기 때문에 나보다 한참 어린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잘 감이 오지 않았고 내가 정말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많이 들었다. 결과적으로 수업이 모두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어 기쁘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팀원들과 함께 수업을 기획하고, 내 분량의 수업 자료를 만들고, 또 직접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배운 덕에 아주 보람차다.

맨 처음에 주제 선정을 하고 약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여러모로 우왕좌왕했던 기억이 난다. 시험 기간을 피해 카카오톡으로 자주 의견을 나누고, 꼬박꼬박 화상 회의를 하는 등 모두들 많은 열정을 가지고 상당한 노력을 하였지만, 다들 어린이를 가르친 경험이 많지 않은 탓에 그 방향성을 잡기란 쉽지 않았다. 처음에는 한복을 입고 경복궁에서 브이로그를 찍자는 현재 시국에서는 현실 가능성이 낮은 계획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실제로 만나서 무언가를 진행하는 것 대신에 녹화 수업을 전부 각자의 집에서 녹화하고, 주제도 삼일절과 같이 거리감이 느껴지는 주제 대신에 어린이날같이 비교적 재미있고 친숙한 주제로 설정하는 것으로 흐름이 바뀌었다. 자료 준비의 경우, 나는 첫 실시간 강의를 맡은 팀원으로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다. 그렇게 일주일의 기간 동안 십이지신의 전설을 담은 애니메이션(https://www.youtube.com/watch?v=sZuW3nIr9nk&t=15s)을 만들고 내레이션을 직접 녹음하면서 늘 하고 싶었던 2D 애니메이션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며, PPT 수업 자료를 만들면서는 내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종종 수업을 담당하셨던 교생 선생님들을 많이 떠올렸다. 아이들의 입장에 나를 직접 대입시키다 보니, 수년 전에 어린 나와 친구들을 가르친 교생 선생님들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새삼스럽게도 내가 성인이라는 사실이 실감났다.

실시간 수업 진행 당일, 설렘과 약간의 긴장을 가지고 줌 회의실에서 대기하고 있자 개구쟁이 아이들이 밝은 표정으로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익히고, 팀원들도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한 후 십이지신과 생일에 관한 수업을 시작했다. 화면 공유를 통해 애니메이션을 보여줄 때, 가려지는 부분 없이 전부 공유가 되게 하려면 줌 비디오 패널을 모두 꺼야 했기에 아이들의 반응을 볼 수 없었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다. 하지만 비대면 수업이라 아무래도 집중하기에 더 어려운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잘 따라와 주어서 다행이었다. 준비한 게임을 진행하고, 또 거기에 팀원들과 함께 참여하기도 하면서 아이들의 티 없이 해맑은 모습에 나도 많이 웃었고, 행복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매끄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던 센스 있는 캠프조선 측의 스태프 Quinn에게 너무나 고마웠다.

비대면으로 수업을, 특히나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이끄는 것이 처음인 만큼 실수도 많이 했고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음을 생생하게 체감했다. 이 이후로도 꾸준히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매우 소소하게나마 나의 위치에서 다른 이들을 돕고, 나 자신도 성장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잊지 못할 추억과 경험을 가능하게 해준 이화와 캠프조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민

대학을 다니며 제가 가장 중요시한 목표는 많은 나라에 가보고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과 소통하며 견문을 넓히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현지 방문은 못하지만, 이화봉사단을 통해 미국 캠프조선 학생들과 함께 활동하며 경험을 쌓고 싶어 2021 이화봉사단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봉사단 활동에서 저희 팀은 미국 캠프조선 중고등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문화를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고 문화교류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저희 팀원들은 브레인스토밍을 하며 어떤 주제로 수업할지 구상했습니다. 회의 결과, 한국 전통 음악과 현대음악, 대학생의 일상, 한국 음식이라는 대주제들이 나왔고 이를 세분화해 다섯 개의 수업 주제를 완성했습니다. 우선, 1차시에서는 한국 전통음악 변화의 흐름을 영상으로 소개한 후 나중에 5차시에서 K-POP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한 실시간 수업을 기획했습니다. 2차시와 3차시에는 각각 한국 대학생들의 일상-시험기간 편과 여가생활 편을 브이로그 형식의 영상으로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4차시에는 편의점 꿀조합 음식 함께 만들어 먹는 수업을 실시간으로 기획해 한국 청소년들의 음식 문화를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언택트 영상 제작과 수업 준비는 생각보다 어렵고 답답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모임 제한으로 대면 소통을 거의 하지 못해 즉각적인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도 학기 중 시간을 쪼개 화상회의로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각자가 맡은 주제에 대한 콘텐츠를 채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차시 '한국 대학생들의 일상-시험기간 편' 브이로그를 담당해 팀원들과 학교에서 모여 대학생의 일상을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캠프조선 학생들이 한국 대학생활에 대해 궁금해하거나 호기심을 가질 만한 점이 무엇일지 계속 고민하며 미국과 다른 한국 대학만의 문화를 강조해 촬영했습니다. 브이로그 촬영이 익숙하지 않아 처음에는 많이 어색했지만, 팀원들과 함께 촬영하다 보니 점점 편하고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안타깝게도 브이로그 촬영날이 되어서야 팀원들을 처음 만날 수 있었지만, 촬영을 계기로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고 팀원들이 제 촬영에 함께 해주어 든든했습니다.

4차시, 5차시 실시간 수업에도 참여했는데 이때는 ZOOM 수업의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고자 함께 움직이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4차시에는 함께 요리를 하고, 5차시에는 함께 K-POP 안무 배워서 춤을 춰보며 학생들의 흥미와 집중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게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얼굴이 아닌 모니터를 맞대고 소통하다 보니 감정적 교류가 많이 부족했고 네트워크 불안정 문제, 시간 제약 등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많은 제약이 있는 수업 환경이지만 잘 따라와준 캠프조선 학생들에게 고마운 마음 반,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 반을 남기며 2021 여름 이화봉사단 활동은 끝이 났습니다.

이번 이화봉사단 활동을 통해 오랜만에 이화, 그리고 캠프조선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환경을 만나게 되어 유익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많이 접해보지 못한 학생들에게 무엇을 소개하면 한국 문화를 압축적으로 잘 소개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했고, 평소 지루하게 반복되던 일상 루틴이 누군가에겐 신기한 문화로 보일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환경적 제약이 없었다면 더 많은 것을 준비해 보여주고 더욱 재밌는 활동을 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남지만, 그래도 처음 시도하는 비대면 봉사활동을 무사히 마쳐서 다행이고 함께 고생한 팀원들에게 고맙고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이화봉사단 대면 활동에 다시 참가해 미국 캠프조선을 방문해서 올해 온라인으로 만났던 학생들과 직접 얼굴 보며 인사 나누고 싶습니다.

김*지

지난 1학년 2학기 이화국내봉사단에 참여한 뒤 뿌듯함을 느끼고 지속적으로 교육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었던 저는 다시 한 번 이화봉사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국내보다 선발 인원도 적고 언어 능력이라는 조건이 있었기에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지원서를 작성하였고 정말 감사하게도 2021년 하계 해외 이화봉사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외국에서 자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한국문화를 받아드리게 할 수 있을지 팀원들과 고민하였고 몇 번의 회의 끝에 한국의 '공휴일'을 주제로 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는 1차시에 진행되는 '어린이날'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날은 한국에선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만 미국에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많은 한국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어린이날을 아이들이 자세히 알게 된다면 좋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달력에 써있는 숫자의 색깔이 다르다는 것부터 시작하여 어린이날의 창시자, 주로 하는 활동들을 소개하였습니다. 비대면 녹화 영상을 통해 수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볼 순 없었지만 4,5회 차에 진행된 실시간 수업시간에 아이들이 동영상 시청 후 스스로 진행한 학습지를 보여주었을 때 정말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는 데에 흥미를 가지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며 저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의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이상을 하려 노력해주셨습니다. 열정적인 팀원분들을 만나 새로운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김*현

이화봉사단 지원동기처럼 한 학기 동안 교육봉사 수업을 기획하고 직접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된 봉사의 자세와 교육적 자질에 대한 깨달음과 성장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비대면 교육 현장 상황에서의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과 교육적 대처 능력을 배울 수 있었다. 내가 맡은 수업 차시의 주제는 '한국 음악의 과거와 현재' 였다. 수업 도입 부분에서 아이들과 라포를 형성하고 수업 주제에 대한 주의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 음악을 들어본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간단히 가졌다. 하지만 대학 수업에서도 교수님의 질문에 자신 있게 답변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은 것처럼 유초등 아이들이 마이크를 켜고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기란 쉽지 않았다. 이때, 캠프조선 담당 선생님께서 '한국 음악을 들어본 경험을 이야기해볼까요?'라는 질문을 '한국 음악을 들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볼까요?'라는 질문으로 바꾸어 아이들의 답변을 유도하셨다. 그러자 아이들은 하나 둘 손을 들기 시작했고 자신의 경험을 조심스럽게 말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통해 아이들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단답형 질문에서 확산적 질문으로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비언어적 요소가 잘 보이지 않는 비대면 상황에서 아이들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작은 참여에도 큰 표정과 몸짓으로 반응해야 한다. 비록 같은 공간에 있지 않더라도 아이들은 선생님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더욱 수업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수업 마지막 부분에서는 '아기상어' 한글 버전을 감상하고 율동과 함께 불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다른 한국 동요를 배우는 것보다 아이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아기상어'를 한글 버전으로 불러보는 것이 아이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아이들은 자신이 아는 율동과 함께 '아기상어' 한글 버전을 즐겁게 따라 부르는 모습을 보였고, 학습자의 학습 수준과 인지 정도를 이해한 후 학습자의 입장에서 수업 내용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수업 예상 시간, 아이들과의 상호작용 등 수업을 기획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수업이 완벽하게 진행되지 않았지만 시행착오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한국 음악 문화의 과거와 현재의 흐름과 정체성을 직접 알릴 수 있어서 매우 의미 있었고 한국 문화의 자부심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팀원들과 교육 봉사 기획 회의를 하고 아이들과 비대면으로 만날 수밖에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원격 교육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지금 이 시점에서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의 현장 기술을 배울 수 있었으며, 미래의 교육공학도로서 질 높은 비대면 교육 제도를 제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과 기여가 필요할지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나

한 학기동안의 이화봉사단 활동이 마침내 막을 내렸다. 코로나로 인해 발대식과 해단식조차 없던 비운의 기수였지만, 이화봉사단은 나의 지금까지의 대학생활 중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사범대생에게 이렇게 지구 반대편의 다양한 부류의 학생을 만나는 것보다 더 특별하고 값진 경험이 있을까? 어쩌면 코로나로 아예 진행되지도 못했을 활동이었기에 줌과 녹화 수업을 통해서라도 참여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로 감사하다.

미국 이화봉사단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바로 영화 <미나리>였다. 아들 데이빗은 부모님 모두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나고 자란 탓에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부족하다. 한국이, 한국에서 온 할머니가, 한국의 식물이 그저 낯설기만 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모든 것과 익숙해짐과 동시에 미국 사회에도 점점 동화되어가는 모습이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 살았던 나와 내 친구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이렇게 영화를 인상 깊게 막 보았던 참이어서 그랬는지 이화봉사단 모집 공고를 보았을 때, 꼭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

나름 중학생 때부터 꾸준히 교육봉사를 해왔던 터라 어렵지 않을 것 같다던 내 예상과는 다르게 코로나 시국 속에서의 교육봉사는 새로움과 어려움이 공존했다. 대면 수업과는 다르게 미리 수업을 녹화하거나 실시간 화상 수업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애초에 카메라 앞에서 오랫동안 서는 게 익숙하지 않았고, 혼자 동영상 편집을 했기에 시간 소요도 많았으며, 촬영을 사회지원센터 내에서 해결했다던 지난 기수와는 다르게 녹화 장비와 장소 대여도 교외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했고, 시험기간이 겹쳐 있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수월할 것 같았던 실시간 수업에서도 예상치 못한 컴퓨터 오류로 애를 먹기도 했다.

그럼에도 수업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었고 내게 값진 경험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팀원들, 캠프조선 스텝들, 그리고 학생들 덕분이었다. 코로나로 인해 제대로 된 대학생활을 못해본 입장에서 이렇게 다양한 전공과 학년의 벗들을 만나 공동의 목표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 자체가 너무 소중한 경험이었다. 열정이 넘치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 내가 더 노력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이 모두에게 있었기에 이번 활동을 끝마칠 수 있지 않았나 싶다. 그래서 소감문을 빌려 짧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초등 고학년팀 팀장이었던 유진 벗, 감사합니다. 매주 회의 주제를 정하고, 4학년이라 바쁘신 와중에도 미팅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마다 도맡아서 해주시고, 전체적인 활동의 진행 방향을 설정해 주셔서 매주 활동이 진전될 수 있었습니다. 총무였던 지혜 벗, 감사합니다. 꼼꼼하게 영수증 하나하나 처리해주시고 활동의 가장 마지막까지 점검해주신 덕에 어려움 없이 활동이 끝났습니다. 또, 수업 녹화 때 밝은 모습으로 능숙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번역 담당이었던 현진 벗, 감사합니다. 실시간 수업 담당이시라 수업 녹화 때 오시지 않아도 되셨음에도 녹화 장비 설치해주시고 바로바로 영어 문장 검토도 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 장비가 없었다면 핸드폰으로 찍느라 더 고

생했을 텐데 빌려주신 덕분에 영상편집이 수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같은 20학번이었던 보연 벗 감사합니다. 어쩌면 부담스러울 수 있는 실시간 수업에 발벗고 나서 주신 덕에 학생들도 더 재밌는 수업을 들을 수 있었고, 저도 마음 편히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도 정말 재밌게 잘 하셔서 저도 마치 연극을 보는 것처럼 빠져들어서 들었습니다.

더불어, 캠프조선 스텝분들께도 감사하다. 사실 대체 어떻게 해야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살갑고 재밌는 수업이 될까 고민이 많았는데, 정말 완벽한 예시를 보여주셨다. 끊임없이 이화봉사단 팀원들을 응원해주시고, 시스템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당황하지 않게 수업이 끊기지 않도록 이어 나가시는 모습에 교직 이론 과목에서도 얻지 못한 큰 배움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도 수업에 열심히 참여해주었다. 사실 수업이라는 게 교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학생과의 상호작용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고맙게도 아이들이 선생님의 질문 하나하나에 진심으로 고민하고 대답하고, 활동 하나하나 열심히 참여해주었다. 이번 캠프가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으로 남길 바란다.

미국 한국인 입양아와 교포 초등학생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려준다는 이화봉사단과 캠프조선의 활동은 단순한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범죄가 급증했기에 더 필요했을 수도 있다. 자아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시기의 아이들이 자신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하며 자신을 사랑하는 과정 중, 어쩌면 발생할 수 있는 '나'와 '나의 뿌리'에 대한 질문에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해주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학생들이 캠프에서 수업했던 모든 내용을 세세하게 기억하지 않아도 좋다. 다만 아이들이 언젠가 한국에 왔을 때, 또는 외국에서 한국과 관련된 내용을 접했을 때, 생경함 대신 친근감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되었다면 나는 만족한다.

이처럼 이번 이화봉사단 활동이 너무 뜻깊었기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참여하는 기회를 갖고 싶다. 바라건대, 다음에 다시 해외 이화봉사단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면 코로나 종식이 빨리 되어서 학생들을 직접 만나고 싶다. 학생과 직접 두 눈을 마주치며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도한다.

김*진

미국에서 중학교를 다닐 때 현지 학생들에게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어 한국에 돌아가면 꼭 해외봉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좋은 기회로 이화해외봉사단 미국 중고등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시험기간을 쪼개 가며 줌으로 회의를 진행한 후, 저희 팀은 총 5가지 주제로 수업을 구성했습니다. 직접 미국에 가 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면 더 좋았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녹화 영상 3편과 실시간 수업 2회로 구성했습니다. 1차시인 '한국 전통음악의 흐름'에서는 한국전통음악을 소개하며 풍물놀이를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원래는 민속촌에 가서 직접 촬영을 해오려 했는데 거주지에서 거리가 많이 멀어 직접 찍어오지 못하고 공식 영상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2차시인 '한국 대학생들의 시험기간 일상'과 3차시 '한국 대학생들의 여가생활' 편은 이화여대와 신촌일대, 그리고 한강에 직접 나가 촬영하였습니다. 화상회의와 카카오톡으로만 만나던 팀원들을 실제로 만나 친해질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즐기지 못했던 여가생활을 이화봉사단을 통해서나마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4차시 '편의점 꿀조합 음식 만들어먹기'와 5차시 'K pop의 과거 현재 미래'편은 실시간 줌 강의로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4차시는 제가 담당해 진행했는데, 영어로 40분 수업을 이끌어 나가야 함과 동시에 음식도 만들어야 해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실제 수업 중에도 많이 우왕좌왕 했던 것 같은데, 함께 했던 팀원들과 캠프조선 측의 Quinn 선생님께서 도와주어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협동심을 기를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날은 진행하느라 너무 정신이 없었어서 캠프조선 아이들의 얼굴을 많이 보지 못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다행히 5차시는 다른 팀원이 진행하여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채팅창으로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5차시에는 직접 K pop 가수 방탄소년단의 'dynamite'안무를 가르쳐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안무를 외워가는 것은 힘들었지만 캠프조선 아이들이 잘 따라해 주어 매우 기뻤습니다.

저는 중고등팀의 팀장을 맡아 팀내 회의를 진행하고, 스케줄을 조정하고, 캠프조선측과 컨택 및 회의, 촬영과 2, 3차시 영상편집, 진행, 그리고 회계의 일부에 참여하였습니다. 거의 모든 영역에 참여하다 보니 한 단계씩 진행될 때 매우 뿌듯했습니다. 특히 영상 편집은 꼬박 이틀을 편집하느라 힘들었지만 다 만들고 나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뿌듯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 이화봉사단에도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번 경험들을 바탕으로 미숙했던 점은 개선해 더 좋은 수업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제한) 때문에 팀원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시간이 없던 점이 아쉽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나아져서 다음에는 모든 팀원들과 캠프조선 아이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랑

이번 여름, 이화봉사단 활동은 제게 한 마디로 '감사한' 활동이었다고 요약하고 싶습니다. 새내기로서 이번 여름 이화봉사단에 참여하게 된다면 올해의 끝자락에 서서 1년을 추억해 볼 때, 보람차게 보냈다고 자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간절한 마음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고 정말 감사하게도 선발되어 본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팀원 중 유일한 21학번이었기에 혹여나 미숙하고 서툰 모습으로 팀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 걱정하며 활동을 시작했으나, 함께 활동을 진행한 중고등 팀원 선배님들께서 많이 가르쳐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무사히 활동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활동을 처음 시작하며 팀원들과 전체 주제에 관련된 세부 테마를 정하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캠프 조선의 학생들에게 한국의 문화에 관해 설명하되, 진부한 주제로 진행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특색이 있는 활동을 구상하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말 그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즉 이화봉사단으로서, 이화봉사단이기에 할 수 있는 주제를 구상하고자 많은 고민의 과정을 거치며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거듭된 회의를 거쳐, 저희는 '공감대'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도출했습니다. 중고등 팀이었기에 대부분 저희와 비교적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나이대의 학생들이었고 이러한 특징을 살려 그들이 궁금해할 만한 생활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편의점 음식을 이용한 먹방 및 조리법, K-POP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생의 휴일과 시험기간 등과 같은 주제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마지막 5차시 실시간 강의를 담당하게 되었고, 저의 주제는 'Past, Present and Future of Korea'라는 큰 테마에 맞춘 'Past, Present and Future of K-POP'이었습니다. 캠프 조선 학생들에게 가장 익숙한 주제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K-POP의 '현재'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방법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초반에 회의를 하며 정했던 것처럼 조금이라도 더 특색 있고 차별화된 활동을 하고자 과거와 미래까지 추가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5차시의 가장 처음에는 S.E.S, H.O.T, 젝스키스 등 90년대 K-POP의 중심이었던 가수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캠프조선 학생들과 함께 지금과는 사뭇 다른 독특한 헤어스타일과 화장법, 그리고 의상이나 사진 컨셉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해외에서 유행하는 BTS, 블랙핑크와 같은 아이돌들은 아무런 연고 없이 등장한 스타일이 아니라 과거의 K-POP 가수들의 영향을 받고 다양한 과정을 거쳐 유행을 변화시켜 왔음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후 캠프조선 학생들에게도 익숙할 많은 최근의 아이돌들의 사진과 뮤직비디오를 함께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불어 저희는 직접 SM 스토어와 하이브 뮤지엄에 직접 방문하여 한국 K-POP 산업의 중심이 되는 두 기획사가 보여주는 다양한 기술과 역사를 담은 영상을 촬영하여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활동을 진행하며 캠프 조선 측과 꾸준히 피드백을 교환하고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이때 캠프조선 측에서 많은 도움을 주어서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만큼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가 다소 힘들다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K-POP 세션에서 직접 짧게 BTS의 Dynamite라는 곡의 안무를 가르쳐주고 함께 자리

에서 일어나 춤을 춰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캠프 조선 학생들이 모두 매우 재밌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었기에 수업이 매끄럽고 흥미롭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화봉사단에 처음 지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이자 활동의 목표는 '소통'이었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진행하며 제가 목표했던 '소통'이라는 가치가 매우 중요하게 기능했고 정말 큰 가르침이자 도움이 되었기에 제게 이번 활동은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각 수업 차시를 거듭해나가며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비대면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 등을 팀원들, 그리고 캠프조선 측과 꾸준하고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며 최선의 결과물을 함께 빚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화봉사단 활동을 통해 '소통'의 중요성과 힘을 여실히 깨달을 수 있었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활동을 끝까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캠프 조선 멤버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여 상당히 아쉬웠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캠프 조선 멤버들에게 큰 고마움을 느꼈고 동시에 많은 정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활동에서 배운 '소통'의 힘과 능력이라는 가르침을 토대로, 추후 이화봉사단 활동이 대면으로 진행된다면 꼭 다시 한 번 더 참여하여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으로서 진정으로 그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2021 이화봉사단(미국)의 멤버로 참여할 수 있어 진심으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